[PARISH VISION]

하느님의 크신 은총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본당으로서의 면모를 다듬어 가야할 시점에 와 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자리이고, 미래에도 우리의 자녀들과 신앙의 후손들이 머물 터전이다. 이러한 의식은 교회 공동체가 자생하고 거듭나는 첫걸음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지향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1. 3'S' Community
   1) Spiritual(성장하는 영적 공동체)
   2) Special(친밀한 가정 공동체)
   3) Serviceable(봉사하는 제자 공동체)

2. Apostolic activity
   1) 사목협의회 - 기획
   2) 구역장회 - 활동
   3) 구역기도회 - 생활
   4) 전례봉사회 - 예배
   5) 울뜨레야 - 성장
   6) 성가대 - 찬양
   7) 레지오마리애 - 신심

3. 성당 마련을 위한 계획
   1) 장· 단기 계획 설정
   2) 기도문 바치기
   3) 추진위원회 구성
   4) 정보수집
   5) 재정 Infra 구축

복음의 가르침(요한1,29-34)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살아가기!

올 한 해도 보름을 지냈고 다시 주일을 맞이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똑같겠지만, 그렇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허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삶의 모양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진리(?)를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들 삶에서 그 당연한 진리를 삶의 친구르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친구라는 표현은 '가깝게 오래 사귄 벗'이라는 뜻으로 아는 아주 쉬운 낱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 낱말의 뜻을 안다고 해서 사람들 누구에게나 친구로 드러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당연히 뜻도 알아야겠지만, 아는 것 이상의 다른 과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연중 두 번째 주일 복음에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드러냈던 세례자요한의 선언을 들었다. 세례자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라고 했다. 물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었겠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도 현실에서 그러한 행복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것인지를 묵상할 일이다.

신앙생활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의무일까? 아니면 권리일까? 부분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 표현 모두 옳게 말한 내용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 몸이 향하는 삶의 방향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

세례를 받으신 다음, 자기를 떠나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담은 고난도의 선언을 한다. 그 내용인 즉, '저분은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잔잔하게 들은 내용은 과연 폭탄선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자유이다. 다만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양식을 달라질 것이다.

세례자요한이 말하는 '하느님의 어린양'은 인간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고, 죄를 거두시는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목숨에 끝이 있는 존재'로서 갖는 한계가 바로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존재가 하느님의 힘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은총이다. 물론 은총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내려오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세례자요한이 말한 '하느님의 어린양'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8절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가 고백한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야했던, 속죄의 의미를 지녔던 어린양이나 염소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 시초이다.

바른 소리는 세상에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소리가 정말로 말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 차이가 기적일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어린양'이라고 알려주는 일보다 '내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면서도 필요한 일이다. 세례자요한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올바르게 신앙고백을 하고 사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나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사야 예언서, 두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처럼, 하느님께서 늘 내 곁에 머무시도록 준비하고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내 삶에서 떠나실 일은 없다. 욕심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서울대교구 주보-

소공동체(구역기도회) 기도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구역기도회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구역기도회 때 꼭 함께 바치도록 합시다!]

본 당 소 식

【2011년 우리 본당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 Evangelical plan of Parish 2011

1. 복음화(Spiritual Community)

1) 말씀의 생활화
2) 기도의 생활화
3) 성찬의 생활화

2. 가정성화(Special Community)

1) 혼인성사 - 부부
2) 가정교회 - 가족
3) 자녀 인성교육

3. 친교와 성장(Serviceable Community)

1) 주님의 날(주일)
2) 이웃의 날(구역기도회)
3) 세상의 날(봉사활동)

▣ 구역기도회 안내

▶ 키 치 너 : 1월 22일(토) 저녁7시-교육관
▶ 캠브리지 : 1월 22일(토) 저녁6시-윤명원
▶ 브랜포드 : 1월 29일(토) 저녁7시-장명길
▶ 워털루 1 : 1월 22일(토) 저녁6시-박재영
▶ 워털루 2 : 1월 29일(토) 저녁6시-고덕근
▶ 워털루 3 : 1월 15일(토)
저녁6시30분-박영진
▶ 워털루 4 : 1월 29일(토) 저녁6시-이상재

▣ 본당 신년 울뜨레야

▶ 일시 : 1월 16일(오늘) 주일미사 후/교육관
모든 꾸르실리스타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 울뜨레야 연례쇄신피정 안내

▶ 일시 : 2011년 1월 28일(금)~1월 30일(일)
▶ 장소 : 사도들의 모후 피정센터
▶ 지도 : 김광태(베드로) 신부/피터보로 한인성당
▶ 문의 : 김현태(요셉) 간사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꼭히 본당신부와 면담)

▣ 예비자 교리

▶ 일시 : 매주 금요일 저녁 6시30분/교육관
※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교리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2011년도 '매일미사' 구입안내

▶ 대 금 : $45.00(1년치)
▶ 신 청 : 선교분과장/박재영(바오로)
T. 519-578-8690

▣ 친교 봉사

▶ 오 늘 : 친교식사 - 키치너구역
오늘부터 매월 1, 3주에 친교식사가 있습니다.
▶ 다음주일 : 친교식사 - 사목위원 주관
버섯판매(주문량에 한하여)

▣ 안내(및 헌금) 봉사

▶ 1월 : 워털루4구역
▶ 2월 : 키처너구역

2011년 1월 16일 /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35.00	
교 무 금	: $ 540.00	
성전건립	: $	
특별헌금	: $	
성모님동산	: $	(누계 : $6590.00)
합 계	: $ 1,27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주임신부
이상선(Joachim)

-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 **평일 미사**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 **병자 성사** 상시
- **혼인 성사** 6개월 전 신청
- **예비자교리** 6개월(통신교리-1개월 보충)
- **고해성사** 미사 전 30분
- **축 복 식** 1주일 전 신청(집·가게·차량)

사무봉사자
이상희(세라피아)/519-894-3533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N2A 1Z4
TEL 519-208-1913
FAX 519-954-1913
www.kwpaul.com

2011-54호 2011. 01. 16

연중 제2주일

전례해설/이정숙 차주해설/최우석

입당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마침성가 (478)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

☞화답송 시편40(39),2ㄱㄴ과4ㄱㄴ.7-8ㄴ.8ㄷ-9.10

◎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그분은 나에게 몸을 숙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아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1,14r.122,2 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네.◎

	독 서	
01월 16일	유종훈	정광숙
01월 23일	백옥현	박인선

	봉 헌	
01월 16일	김동규	김은옥
01월 23일	유종훈	정광숙

	복 사	
01월 16일	안아림	김현지
01월 23일	유승환	이수민